

배극남의 대중문화 X파일

드라마 회당 10억 원 시대...스타 몸값, 어디까지 치솟나



영화 '범죄도시 3' 마동석, 드라마 '재벌 집 막내아들' 송중기, '더 글로리' 송혜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드라마 '어느 날' 김수현, '지리산' 전지현, '오징어 게임 2' 이정재.

극단적 출연료 양극화에 대중문화산업 퇴행 위기

글로벌OTT 물량 공세에 김수현·송중기·이정재 등 회당 3억~10억 원
일반 연기자·스태프 인건비 등 다른 제작비는 삭감, 작품 질 저하 문제



“수없는 협상 과정에서 늘 생기는 문제가 배우 출연료인데, 주연은 이전 회당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나오는 현실이다. 드라마 업계의 생존을 위해 지구력을 찾아야만 한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스타 몸값이 불어난 드라마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서 터져 나온 절박한 목소리다.

2005년 한류 확산과 문화 콘텐츠 시장 확대로 출연료가 급등하면서 초래된 스타 권력화 문제의 공론화 과정에서 “스타들이 돈을 너무 밝힌다. 스타와 연예기획사 등쌀에 영화 제작이 힘들다”라는 영화감독 강우석의 직격과 “치솟는 스타 몸값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오르는 스타 출연료 문제를 두고 본다면 드라마 시장은 망할 것이다”라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김승수 사무총장의 비판이 제기된 지 20년 만에 또다시 스타 출연료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문화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년 전 주연 드라마 출연료가 회당 2000만 원에 달하며 촉발된 스타 몸값 논란이 무색하게 이제 회당 출연료 10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 스타 출연료가 세계 2, 3위 대중문화 시장 규모를 가진 중국과 일본의 스타를 상회하고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할리우드 스타에 버금간다는 말까지 나온다. 톱스타의 미니시리즈 회당 출연료 10억 원은 6등급 배우 출연료 43만 6590원의 229배다.

지난 20년 동안 스타의 대중문화 분야별 출연료는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한류 핵심 콘텐츠인 드라마의 출연료 상승세는 충격적이다. 스타 김희선

이 2003년 드라마 회당 출연료 1000만 원 시대를 연 뒤 2000년대 중후반 한류의 폭발로 스타 출연료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2000만 원대로 치솟자, 위기의식을 느낀 제작사와 방송사에서 스타 몸값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일시에 무력화시킨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2007년 ‘태왕사신기’의 주연으로 나선 배우진이 회당 출연료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국내 스타(2000만 원)의 12.5배 그리고 일본 스타(5000만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대중과 문화산업 종사자를 경악시킨 배우진 출연료로 스타 권력화 논란이 본격화했지만, 스타 몸값은 지속해서 올랐다.

한류스타 김수현이 2021년 방송된 쿠팡플레이 드라마 ‘어느 날’에 나서며 회당 5억 원의 출연료를 챙겨 대중을 놀라게 했고 월드스타 이정재가 올해 서비스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회당 10억 원의 출연료를 받아 문화산업 종사자를 소스라치게 했다. 불과 3년 만에 스타 몸값이 두 배로 뛰며 드라마 회당 출연료 10억 원 시대를 맞은 것이다.

2023년 200억~300억 원대의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더 문’ ‘비공식작전’ ‘1947 보스톤’ ‘노랑’ 같은 대작을 비롯한 대다수 한국 영화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들어서 ‘외계+인 2’ ‘데드맨’ ‘도그 데이즈’를 비롯한 한국 영화가 줄지어 흥행에 참패해 영화산업 침체가 더욱 깊어지는 상황에서 스타의 영화 출연료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2006년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30억~40억 원 일 때 스타 한 명의 몸값이 제작비의 10%인 4억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한국 영화와 영화계는 망하는데 유일하게 흥하는 사람은 스타밖에 없다”라는 말이 영화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2012년 개봉한 ‘광해, 왕이 된 남자’ 주연 이병헌은 출연료로 미니멈 개런티 6억 원과 러닝 개런티를 받기로 계약했는데 1000만 관객을 돌파해 행진 수입은 10억 원이 넘었다. 이제 대다수 스타가 이병헌처럼 기본 출연료뿐만 아니라 러닝 개런티까지 받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죄도시’의 마동석 같은 일부 스타는 제작에도 참여해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

최근 스타 몸값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바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같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에 물량 공세를 펼치는 글로벌 OTT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영화 산업 전반이 글로벌 OT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스타 몸값이 치솟고 있다. 기존 드라마 제작비와 비교를 불허하는 600억~1000억 원대의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경성 크리처’ ‘오징어 게임 2’와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같은 글로벌 OTT 콘텐츠가 스타 출연료의 브레이크 없는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스타 몸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오르고 있는 데도 제작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스타 출연료에 목을 맨다. 연기력과 캐리커 장출력이 출중한 일반 배우를 캐스팅하고 촬영과 미술, 특수효과에 제작비를 더 투입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

지만, 스타가 출연해야 방송사와 OTT의 편성을 받을 수 있고 제작비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홍보와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 캐스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작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이다.

현재의 스타 출연료가 대중문화 시장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게 제작자와 전문가의 한결 같은 진단이다. 폭등하는 스타 출연료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우선 한정된 제작비에서 스타 몸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반 연기자의 출연료와 조명, 오디오, 촬영, 분장 등 제작 스태프의 인건비 삭감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스타 출연료가 급등하면서 콘텐츠의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의상, 세트, 특수효과, 무대 관련 제작비가 줄어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야기된다. 심지어 등장인물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치솟는 스타 몸값은 연예인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조장해 대중문화 산업의 퇴행을 불러온다. 16부작 드라마 한 편 출연을 통해 160억 원을 버는 스타들이 출연 기회와 출연료가 적어 심한 생활고를 겪다 연예계를 떠나는 배우와 가수, 예능인을 양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연예인을 배태하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스타 출연료로 제작비가 폭등해 KBS, JTBC, 티빙을 비롯한 방송사와 국내 OTT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편성을 줄이고 제작사는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이 힘들어 문화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평일 드라마가 한 편도 없는

SBS를 비롯해 방송사와 OTT 드라마는 2022년 135편에서 2023년 125편으로 1년 만에 7.4% 감소했다.

대중문화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스타 몸값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한국에선 스타의 합리적인 출연료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 드라마 시청률이 저조하게 나오거나 영화 흥행에 실패해도 한 번 오른 스타 몸값은 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된다.

대중문화 본고장인 할리우드에서조차 스타가 최고 출연료를 받았어도 흥행에 실패하면 출연료가 곧바로 내려간다. 일본 스타는 방송사와 연예인을 관리하는 프로덕션이 공동으로 인기도, 시청률 및 흥행 성적, 작품 기여도 등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정한 등급에 따라 출연료가 책정된다. 중국은 배우 출연료가 총제작비의 40%를 넘길 수 없도록 했고 출연료 중 주연급 몸값은 70%를 상회할 수 없게 규정했다.

제작사와 방송사, 감독, 연출자, 전문가는 건강한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위한 합리적인 출연료가 이드라인과 회당인 아닌 제작 기간, 촬영 일수, 촬영 시간 등을 기준으로 스타 몸값을 책정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부가 정부 차원의 스타 출연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문화 콘텐츠 산업의 위기가 더 심화하기 전에 스타 몸값 문제가 발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것이 한국 대중문화를 살리고 한류를 상승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평론가>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쿠팡맨더4, 남은 인생 10년
- 2관 파묘
- 3관 남은 인생 10년,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 4관 쿠팡맨더4, [보석특기]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 5관 넷플릭스
- 6관 쿠팡맨더4
- 9관 오멘: 저주의 시작
- 7관 싸네버블 오멘: 저주의 시작, 골드핑거, 비키퍼
- 8관 싸네버블 남은 인생 10년, 어게인 1997, 1980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